



경기도 연천군 승전 초소

그리움 머무는 곳... 아픈 역사위 여름이 익어가네

호국·안보여행

호국 보훈의 달 6월이 다가온다. 아픈 역사를 담고 여름이 무르익어가는 자연으로 떠나보자.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를 생각해 볼 수 있는 호국·안보 여행, 한국관광공사가 추천하는 6월의 여행이다.

■ 양구 편치불과 두타연

한국전쟁 당시 치열했던 9개 전투가 강원도 양구에서 벌어졌다. 전쟁의 포화 속에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온전히 살아남지 못했으니 그곳에서 산화한 젊은 목숨이 얼마나 많았을까.

을지전방대에서는 북녘이 손에 잡힐 듯 가깝고, 금강산 봉우리도 육안으로 보인다. 가깝지만 가장 먼 땅, 바쁜 일상에 잊고 있던 '통일'이라는 단어를 곱씹어보게 하는 곳이다. 을지전방대와 제4땅굴, 양구 전쟁기념관은 편치불의 3대 안보 관광지다.

전쟁의 상처 위에 피어난 청정한 자연을 온몸으로 느끼는 트레킹 코스는 두타연이 최고다.

2004년 개방되기까지 민간인 통제구역이었기에 자연 모습 그대로 간직되었다. 양구에 문화·예술 바람을 몰고 온 박수근 미술관, '이해인 시문학의 공간, 김형석·안병욱 철학의 집'(약칭 이해인 시문학관), 국토 정중앙전문대와 캠퍼스, 광치계곡 등 1박 2일 일정으로 돌아보기 좋은 명소가 많다. (문의:양구군청 경제관광과 033-480-2251)



■ 거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한국전쟁 당시 거제 포로수용소에는 최대 17만 3000명이 수용됐다.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에는 당시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포로수용소가 거제시 신현읍·연초면·남부면 일대 1200만 m에 설치된 것은 1950년 11월 27일 무렵. 인천 상륙작전으로 급속하게 늘어난 포로를 수용할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휴전된 1953년 7월까지 거제 포로수용소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 디오라마관과 포로수용소유적박물관, 잔존 유적지 등은 당시 상황을 생각하며 꼼꼼히 살펴봐야 할 공간이다.

맑고 푸른 거제 바다를 만날 수 있는 거제 조선 테마파크(거제 조선해양문화관·어촌민속전시관)와 도장포 바람의 언덕, 이순신 장군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옥포대첩 기념공원, 산속의 쉼터 거제 자연휴양림 등도 함께 돌아봐야 할 관광지다. (문의:거제관광안내소 055-639-4178)



■ 무주 덕유산 의병길

무주 덕유산 일대는 구한말 의병들이 활발히 활동한 곳이다. 그중 안성면 칠연의총에는 의병들의 안타까운 사연이 남아 있다.

덕유산에 기대어 끊임없이 일본군을 괴롭히던 신명선 휘하 의병들이 일본군의 기습으로 이곳에서 모두 전사했다. 칠연의총과 칠연폭포를 거쳐 동염령까지 이어지는 덕유산 의병길은 안타깝게 순국한 의병들의 한과 설움을 곱씹으며 걷는 길이다.

백련사 탐방로에는 의병장 문태서의 순국비가, 나제통문에는 의병장 강무경의 동상이 있다. 덕유산을 의지해 활동을 한 수 많은 의병들의 흔적이 남아 있다.

백련사 탐방로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트레킹을 즐길 수 있으며, 구천동계곡과 나란히 나제통문까지 이어지는 길은 드라이브 코스로도 제격이다. 나제통문을 지나 만나는 반디랜드도 무주 반딧불축제에 즈음해 찾아볼 만하다. (문의 : 무주군청 문화체육관광과 관광육성계 063-320-2547)



■ '서해의 보석' 백령도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백령도는 우리 땅의 서쪽 끝이자 북쪽 끝이다. 중국 산둥반도와 190여 km, 북한의 황해도 장연군과는 10km 거리다.

백령도와 인천을 오가는 뱃길이 200km 남짓이니 서울보다 북한이나 중국과 가까운 섬이다. 이런 지리적 상황은 백령도를 군사적으로나 문화·경제적으로 주목받게 만들었다.

조선 후기, 서구 열강은 백령도를 징검다리 삼아 우리 땅에 기독교와 천주교를 전하려 했고, 한국전쟁 때는 어느 지역보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기도 했다.

평화와 전쟁, 사랑과 아픔이 공존하는 섬이다. 백령도는 국가의 의미를 되새기는 이즈음 찾기에 더없이 좋은 여행지가 아닐까 싶다.

(문의:옹진군청 관광문화과 032-899-2210, 백령면 민원실 032-836-3000)



■ 연천 안보 관광

경기도 연천의 승전OP(Observation Post·초소)와 1·21 무장공비 침투로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라는 우리나라의 아픈 현실을 말해주는 곳이다.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둔 국군과 북한군 관측소의 거리는 750m에 불과하다. 양군의 관측소와 초소, 남북을 가르는 철책은 팽팽한 대치 현장을 보여준다.

하지만 철책을 빼고 보면 우리 삶 터와 다르지 않다. 산과 들이 펼쳐져 있고 노루가 뛰어다니며 새들이 활활 날아다닌다. 민통선 안에서는 모를 가꾸고 밭을 일구는 농부들이 보인다. 그들을 보며 언젠가는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게 된다.

1·21 무장공비 침투로는 1968년 1월 21일 청와대를 폭파하기 위해 휴전선을 넘어온 무장 공비 31명이 경계 철책을 뚫고 침투하는 모험물이 전시되어 안보 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 (문의:연천군청 문화관광체육과 관광팀 031-839-2061)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YONAMJA

STEAK / PASTA / PIZZA / BEER

E-mail : rsh3366@hanmail.net

광주 유·스퀘어점 062) 673-7979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